

고, 바다는 심지어 안개로 뒤덮여 있었지. 먼 바다에서 먹구름 하나만 어렴풋이 보였는데, 그 먹구름이 해변으로부터 약 1/4리외쯤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제 호박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지. 이렇게 어두침침한 날에는 우리가 있던 해변 끝자락과 섬 안쪽에 있는 몇몇 산봉우리만 보였는데, 때때로 그 주위를 맴도는 구름 사이로 봉우리가 보이기도 했다네.

아침 7시경, 우리는 숲에서 울려오는 북소리를 들었어. 총독이 오는 소리였지. 라 부르도네 씨가 말을 타고 도착했고, 그 뒤를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과 많은 수의 주민들,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따르고 있었네. 그는 자신의 군인들을 해변에 배치하고 일제히 무기를 들어 발포하라고 명령했어. 그들이 총을 쏘자마자, 바다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뒤이어 거의 바로 직후에 대포가 발사되었네. 선박이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판단했기에, 우리는 다 같이 그 신호를 본 쪽으로 달려갔어. 그제서야 우리는 안개 너머로, 육중한 선박의 몸체와 돛의 활대를 보았다네. 파도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와 아주 가까이 있었기에, 인부들을 지휘하는 선장의 호루라기 소리와 “국왕 만세!” 삼창을 외치는 신원들의 함성을 들었어. 사실 그건 커다란 환희 속에서의 외침이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극심한 위험에 처했을 때의 외침이기도 했네. 말하자면 마치 위험에 처해 있는 신원들이 그들을 구출해달라고 왕을